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성경: 누가복음 5장 27-32절

Tag: #구원 #복음 #

27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5:27-32)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제자로 삼기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말씀 하셨다.

이 레위는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중 한명인 마태이다.

그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였다.

그가 레위로 알려진 이유는 아마도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세리인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레위라고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본명이 마태라고 밝혔을지 모른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자신의 신분이 원래 세리였다고 밝히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가 분명히 회개한 사람인 것에 대한 신앙고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추측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유추이다.

당시에는 세리와 창녀를 동급으로 취급하였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똑똑했으며, 문필가였고, 심지어 셈까지 잘하는 자였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무슨 사정인지 세리가 되었다.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까지 점령하였고, 총독 뿐만 아니라 본봉왕을 세워 통치하게 하였고, 군 사령관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인두세를 거두게 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반역의 기운을 제압하고 있었다.

세리는 어쩌면 적국 로마군인의 앞잡이가 되는 형국이어서 매국노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리 몇몇한 직업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셈에 익숙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출세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운 세리가 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집안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세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세리가 마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의 보통 세리는 동족을 향한 수탈도 빈번했다고 한다. (세리 삭게오의 고백) 동료 직업인의 비리는 마태 자신의 비리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워 지는게 사실이다.

예수님은 그런 마태의 심정을 잘 알고 계셨으리라. 예수님은 마태도 구원하기 원하셨다.

현재 그가 비록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그도 구원의 대상이며, 얼마든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간파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라 오겠니? 하고 권하셨을 것이고 마태는 순순히 예수님의 권고에 순종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

하고 있다.

‘모든 것’은 비단 자신의 관직만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

-마태의 윗사람이나, 로마의 행정관이 따지고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당장 그만두게 되어서 발생하는 업무 차질에 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회계 장부상에 수불관계가 당장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경우 돌려 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였다는 추측이 가능한 문구이다.

왜 마태는 커다란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손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을 볼 때 마태에게는 순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에게는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권유 하셨을 때 손해날 것을 염려해서 나중에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세속적인 가치로 판단할 경우 분명히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손해보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세속적인 가치로 따질 때 손해 보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마태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고, 선한 일이며, 마땅한 일이고, 복된 것이며,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확신했다.

다만 그가 세리 신세고, 부끄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었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 미셨다. 죄인을 불러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허물하지 않으신다. 그 허물을 나중에 거론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그가 다시금 죄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과거의 이력 때문에 낙인찍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만약 회개한 죄인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린다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만약 그가 다시금 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가 다시금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악랄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역이용하여 죄를 범하고 회개하기를 습관처럼 여긴다면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죄는 영영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왜 다시금 죄인으로 돌아서는가? 그것은 죄의 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이다.

마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벗어나고 싶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로 인해 고단한 인생을 살게 마련이다.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 버리셨다. 이것이 곧 복음이다.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다.

죄악으로 물든 인생은 오직 허무할 뿐이다. 막상 세속적인 욕심을 쟁기고 보면 한없이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그걸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지만, 자신이 왜 이토록 방황하는지 자기 스스로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우리교회 다니시던 분이 계셨다. 젊어서 돈을 많이 버셨다. 세일즈 강사셨다. 재능은 입에 발린 소리를 잘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신의 일생 전체가 거짓이라

는 것이었다. 나오지 않은 대학 졸업했다고 속이고 다녔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제주도 제주라고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었다. 강의실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상품 소개를 하고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지를 강의한 다음 사람들을 서울 시내에 풀어 놓았다. 방판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 힘들다. 매일 저녁마다 돈가방을 들고 퇴근했다고 한다. 그런데 매일 밤 빠짱코를 했다고 한다. 새벽녘까지. 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한참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시즌이 지나니 더 이상 그 일이 먹히지 않게 되어 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그 돈을 모아 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 호락 하지 않다. 누구든 그런 상황이면 인생은 후회하는 짓을 하게 된다.

어쩌면 마태도 그런 지경에 놓였을지 모른다. 삭개오도 수가성의 여인도 처지는 다를지라도 모두 인생의 막바지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른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곤경을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모두 선남선녀들이다. 그러나 속 사정을 들여보면 대부분 절실하다. 외출 타기 하듯 아슬아슬 하다. 겉으로는 잘되는 것 같지만, 속 사정은 전혀 다르다. 아등바등한 삶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모두 크고 작은 죄에 연결되어 있고, 집안의 저주가 짐이 되어 있다. 그런 모든 자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다. ‘다 내게로 오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11:29)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11:30)

마태는 감격하여 자기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세리 친구들도 많이

초대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였다. 이게 소문이 나서 바리새인들도 구경을 왔다.

바리새인들이 잔치집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다. 온통 세리들 투성이었다. 매우 기분이 상했다. 온통 매국노들이 바글 거렸다. 애국심이 투철한 바리새인으로서는 몹시 불쾌 하였다.

‘너희가 어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모두 유구무언인데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5:27-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이 되었다.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 어떤 죄가 있는데, 저런 사람은 전도하기 어려워.

저 사람은 교회 가자고 하면 길길이 날뛰거야. 마태같이 순종하면 좋겠는데...

물론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마태처럼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을 마태를 비난하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으셨다. 우선은 우리도 그래야 한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죄인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가 회개하는가, 그가 순종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다. 모두는 아닐지

라도 가능성이 많다. 다만 우리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비판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 죄인이지만 의인이 아니다. 그가 언제 회개할는지, 언제 순종할는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면 된다.

구원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다.

구원 받아야 이 세상에서도 쉼을 얻는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오늘도 죄인을 불러 구원하여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소서. 아버지를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예배〉 박가운

제목 : 서로 기도하라

성경: 야고보서 5장 13-18절

Tag: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약 5:13-18)